

송년사

친애하는 영진 임직원 및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한 2019년도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 회사발전을 위해 각자의 맡은 바 책무를 묵묵히 수행 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를 뒤돌아 보면 국내·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경제의 혼란스런 여건으로 인해 경기 침체와 성장률 둔화라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하였고, 우리 회사 역시 정부의 정비원 “공공기관으로 전환” 정책 추진으로 주력사업인 발전분야 신규발주가 지연됨으로써 커다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들은 당연히 수주와 매출로 직결되어 당초 계획한 사업 목표가 크게 미달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우리회사 구성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원가절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반성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든다면 우리 영진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힘이 될뿐 아니라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될 것 임이 분명합니다.

영진 임,직원 여러분!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대망의 2020년도에는 2019년에 못다한 것까지 보태서 수주를 극대화 하고 알찬 경영으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함께 합시다.

한해의 마지막에 서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새로운 「희망의 해」를 맞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영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청훈

